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송석환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 (주)한우리SJM

2014년 (단기 4345년) 3월 31일 (월)

<http://dongguk.info>

제231호

27대 총동창회장 송석환 동문 취임

“동창회관 건립 완성으로 동국의 위상 높이겠다”
이사회 및 정기총회 사상 최대 인원 1천여명 참석



▲ 송석환 신임 회장

본회 제27대 회장으로 송석환(64/68농경, 동진기업 회장) 동문이 정식 취임했다.

송 회장은 지난 3월25일 앰배서더호텔에서 1천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6차 정기이사회와 제33차 정기총회를 거쳐 회장에 당선, 이날 취임식을 가졌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수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총동창회를 이끌어 대내외적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셨던 이연택 전임 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동문 여러분과 함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더욱 견고한 동국정신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동창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인사했다. 이어 송 회장은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 재학생들의 학구열 고취를 위한 장학사업 확대, 유능한 동문의 모교재단 이사 파

송 제도화, 회원간 화합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교·재단·동창회 삼위일체로 명문사학의 명성회복 등 4가지를 약속했다.

감사에는 이제곤(64/68경제, 아진기업 사장), 이홍섭(80/84회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오수환(84/88법학, 변호사)동문이 선출되었다.

이날 회의는 이연택 전임회장 유고로 송석환 총동창회장 직무대행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어 모두 3시간 여에 걸쳐 열띤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신관호 사무국장 사회로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된 정기이사회는 지난 3월11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회칙 14조 3항에 의거, 송석환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토록 의결한 사항을 먼저 주인받은 뒤 송석환 회장 직무대행이 의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2면으로)



▲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린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은 1천여 동문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 냈다.

“모두 하나되어 강한 동창회 · 명문동국 건설”

신임 임원 만장일치 선출 … 예 · 결산안 원안대로 통과

<1면에서>

성원보고 후 이사회 안건 선정

이날 이사회는 김희형(56/60정치), 원용선(59/63영문) 고문 등 임원 352명(위임 59명 포함) 출석으로 성원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도 회무 및 결산 보고, 임원 선임안,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차례로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계 감사 보고서 ‘적정의견’

제1호 의안 ‘결산안 심의’에서 이홍섭 감사(80/84회계)는 감사보고에서 △제26대 총동창회장 자격 상실 △총동창회장 선임 관련, 회칙과 관련 규정 재정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지출증빙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수지사항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때 노환영(61/65영문, 서울마주협회 대표이사)동문은 긴급 동의를 통해 “전임 이연택



▲ 이제곤 감사



▲ 이홍섭 감사



▲ 오수환 감사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회장 직무대행 추인’

전임 회장 미납 발전기금 새 집행부에 위임

예산’ 심의에서는 사업계획으로 △조직 강화 △재정 안정 △총동창회관 건립 △소통과 화합 △동국의 위상 제고 등 5개항이 보고됐다. 또 전체 예산안은 8억여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고하자 흥석표(75/82경영, 풍림산업 부사장)동문이 “임원 회비 등 수입도 적정하게 편성된 것 같고, 지출 또한

장에게 ‘동국대학교 동창회기’를 전달하며 축하와 함께 “25만 동문을 대표해 모교 발전과 동창회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물과 우유처럼 하나가 되라”

모교 정각원장 법타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께서 물과 기름처럼 걸들지 말고, 물과 우유처럼 하나가 되라 하셨다”면서 “오늘 송석환 회장 취임으로 동창회는 확실하게 하나가 되었다”고 격려했다.

또 신윤표(61/65행정, 전 한남대 총장)동문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서로가 나누고 베풀며 화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동국정신을 계승,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행사 말미에 김환배(68/72연료공학) (재)동국장학회 이사는 “후배 장학금 모금의 일환으로 본회와 GS칼텍스간에 ‘동국노블리스 카드’ 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소개하고 “이 사업이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후배 장학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많은 동문들의 현금 협찬(명단 17면)이 이루어졌으며 취임축하 플래카드, 기념품, 화환 등이 담지했다.

◆취임축하 플래카드

-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박태권)
- △경제학과 동창회(회장=한영희)
- △농업경제학과동창회(회장=장민수)
- △경주직할동창회(회장=김종형)
- △83학번동기회(회장=이재근)
- △상수회(회장=어연호)
- △ROTC동문회(회장=윤관욱)
- △FODE 장학회(회장=장영호)
- △동국어너스클럽(회장=오정석)
- △동악회(회장=임규영)
- △국민은행동문회(회장=김태성)
- △북미주동창회(회장=김경재)
- △인천광역시동창회(회장=이환섭)
- △서울 강남동문회(회장=이학균)
- △서울 강서동문회(회장=김재웅)
- △여의도 동의회(회장=김동성)
- △경기 용인동문회(회장=양승룡)
- △강원 영동지역동문회(회장=유문승)



▲ 박만갑 임시의장(왼쪽)이 송석환 회장 당선자에게 ‘동창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회장의 미납 발전기금 4억원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를 물었으며, 송석환 회장 직무대행은 “이 문제는 앞으로 출범하는 집행부에 맡겨달라”고 요청해 새 집행부에 위임했다.

2013년도 회무 및 결산안 심의는 결산내용 보고 도중에 김동성(73/81정외, 베리스코리아 대표이사)동문이 “조금전 감사로부터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을 들은 만큼 나머지는 회의자료집을 대신하기로 하자”고 동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장·감사 무투표 만장일치 당선

제2호 의안 ‘임원 선임’은 박만갑(64/68정외, 전 대산건설 법정관리인)동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 김진여(73/80경영, 경기대 교수) 동문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들은 뒤 단독 입후보 등록한 송석환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이제곤, 이홍섭, 오수환 동문을 신임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동국의 위상 제고 등 공약 발표

제3호 의안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결산액을 참조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의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정기총회 986명 출석으로 성원

정기 이사회 안건 처리를 마치고 곧바로 진행된 제33차 정기총회는 같은 장소에서 1천여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총회에서 1호 안건인 ‘결산보고’는 강병국(64/68농경, 세교산업 대표)동문의 동의로, 3호 안건 ‘예산안 보고’는 이성우(94/02회계, 공인회계사)동문의 동의로 각각 통과되었다.

2호 안건으로 상정된 ‘임원 인준안’은 정기이사회때 임시의장을 맡은 박만갑 동문을 다시 뽑아 안건을 상정, 윤길한(64/68정외, 미래세움 상임고문)동문의 동의로 원안대로 인준했다.

회장에게 당선증 교부-회기 전달

임원 인준 절차가 끝나자 곧바로 김진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새로 선출된 제27대 회장 및 감사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어 박만갑 임시의장은 송석환 회

“궤변 · 폐법 안 통했다”

동문들, 세종문화회관 총회 ‘외면’



▲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총회 장면(사진 · 법보신문 제공). 앰배서더 총회와 참석인원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연택 전임 회장측이 3월25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소집한 정기 이사회 및 총회 참석인원이 150여명에 불과, 앰배서더의 1천여명이 참석한 회의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날 회의 일정은 송석환 회장 직무대행측이 먼저 3월25일로 정하고 공문과 광고를 통해 동문들

에게 알렸다. 이후 이 전임 회장측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장소만 달리해 총회 소집을 알림으로써 불가피하게 두 총회가 동시에 열렸다.

총회는 참석인원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그동안 이 전임 회장측 궤변과 폐법이 동창사회에 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제27대 총동창회 상임위원 26명 위촉

수석부회장에 전영화 동문 … 경륜 · 대표성 · 70-80학번 주축



▲ 전영화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를 구성, 발표했다.

송 회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수석 부회장에 전영화(65/69경행, 모교 겸임교수)동문을, 상임부회장에 법타스님(67/74인철) 등 26명을 위촉했다.

송 회장은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강한 동창회, 회관건립 완성에 기조를 둔 업무의 연계성과 경

륜, 세대간 조화와 동문활동의 대표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상임위원 위촉 과정에서 선배 기수들이 후배들의 참여문호를 열어주기 위해 대폭 양보, 70-80학번들이 주축이 되어 동창회를 이끌어 가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임위원들에게는 지난 3월28일 오전 위촉장을 수여했다.

▣ 담당 상임부회장

△건학이념=법타스님(67/74인철) 동국대 정각원장
△총무=정환민(65/69농학) 前 한서대 교수
△기획=김진억(73/80경영) 경기대 교수
△조직=김오현(76/80체교) BMK 회장
△장학=심응석(72/79경행) (주)생명

현미 사장

△사업=김환배(68/72연료공학) GS칼텍스 (주)지디에너지 대표이사
△홍보=이계홍(65/69국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기획팀 전문위원
△학술=강신승(72/77농경) 前 등촌중 학교장
△여성=조충미(81/85교육) 에이서유 학원장
△예술=최진수(78/85연영) 커뮤니케이션 월 대표이사
△체육=김동성(73/81정외) 베리스코리아 대표이사

▣ 무임소 상임부회장

△이재형(64/68불교) (주)우성 회장
△임규영(68/75경제) 현대빌딩 대표
△박대신(69/73국문) 동우 대표이사

△차민수(69/73경제) 경원상사 회장
△강영규(70/77경행) 前 경찰대학장
△정상철(70/74경제) 인천대 교수
△박태권(71/75정외) 前 충남도지사, 정치외교학과동창회장
△유종칠(73/77건축) 리아건설 사장, 건축공학과동창회장
△윤관욱(73/77화공) 다빈치CL웍스 사장, ROTC동창회장
△김종형(81/88경영) 한우리C&D 사장, 경주직할동창회장
△김종찬(82/86교육)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 사장, 82학번동기회장
△김종필(82/88경제) 내일신문 정치부장
△정산스님(88/92선학) 경국사 주지
△홍종표(94/96행원) (주)동해 사장



법타스님(건학이념)



김진억(기획)



김오현(조직)



심응석(장학)



김환배(사업)



이계홍(홍보)



강신승(학술)



조충미(여성)



최진수(예술)



김동성(체육)



이재형(상임부회장)



임규영(상임부회장)



박대신(상임부회장)



차민수(상임부회장)



강영규(상임부회장)



정상철(상임부회장)



박태권(상임부회장)



유종칠(상임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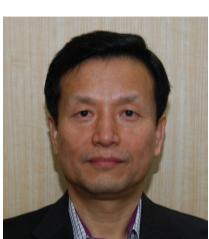
윤관욱(상임부회장)



김종형(상임부회장)



김종천(상임부회장)



김종필(상임부회장)



정산스님(상임부회장)



홍종표(상임부회장)

‘회관 건립기금모금위’ 협의 27대 첫 상임위, 현안문제 의견 수렴

제27대 송석환 회장 체제의 제1차 상임위원회가 지난 3월28일(금) 오전 11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려 새 회장 출범에 따른 본회 현안문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새로 구성된 27대 상임위원회 위원 26명중 21명(위임 5명 포함)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심의 사항으로는 △상임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집하도록 한다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위원회를 조속

발족시킨다 △모교에 출연하는 발전 기금이나 장학금은 각급 동문회나 동문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추가한다 △회비 증대방안을 적극 개발한다 △연례행사인 동국 인골프대회는 5월중에 개최토록 한다 등의 안건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보고사항은 정환민 사무총장으로부터 △회보 231호 제작 진행내용 △임원진 개편 준비 △사무실 집기 분실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신임 사무총장에 정환민 동문



본회 송석환 회장은 지난 3월26일 자로 신임 사무총장에 정환민 (65/69농학) 총무담당 상임부회장을 임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회장님의 추진하시는 동문간의 화합과 모교 영광을 되찾는데 필요한 역할에 충실히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사무실 운영에는 일대 혁신을 피하겠다”면서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동창회관 건립기금, 장학기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각종 회의의 동창회 회의실 활용과 동창회 주관행사를 동문들의 자원봉사로 대치하는 등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ROTC 7기인 정 사무총장은 해병대 중위 예편 후 NIS에서 3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해왔으며 2003년 정년 퇴직했다.

이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장, 한서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이에 따라 본회 사무처는 정 사무총장을 비롯 신관호 사무국장, 이상호 부장, 윤다영 대리 등으로 인적 구성을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임 인터뷰

“갈등요인 덮고 신뢰·책임·상생 동창회로”

“절차상의 문제, 작은 오해로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모두 덮고 가겠다. 지금 이야기로 단결과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동문의 번영과 모교 발전을 위해 마지막 봉사로 알고 온 힘을 쏟겠다”



총동창회장

송 석 환 (64농경)

“동창회관 없다는 건 수치, 임기 내 짓겠다” 모교와의 관계 개선… 건설적 대안 제시 전임 회장측과는 통합 새 방향 제시할 터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된 송석환(69세, 65/68농경)동문의 회장 취임 소감이다. 그는 3월25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동국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새 동창회장에 선출됐다. 같은 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새 총동창회장 선출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해서도 “마음은 괴롭고, 그만큼 서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상식과 정도로 나가면 언젠가 통합이 될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지만 일탈행위에 대해 크게 괘념치도 않겠다는 자세다. 그러면서 “좀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했다. 그의 각오와 다짐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회장은 “총동창회가 갈등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젠 동문사회의 연대와 동창회 번영, 모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기간 내 총동창회관을 건립하고, 90년대 졸업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도 했다. 동창회가 참여하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따뜻하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그는 고향인 김천고등학교 총동문회장과 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전국 2백위권에서 30위권으로 고교 순위를 올린 업적을 내세우며 모교 발전을 위한 비전이 있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송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총동창회장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누구나 봉사하는 자리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수입이 보장되는 기구도 아니

다. 다만 동문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서로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성취를 이루는 계기를 만드는 곳이다. 그런 면에서 총동창회를 동문과 모교를 받드는 기구로 만들 생각이다. 지금까지 대체로 총동창회엔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끼리끼리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기구를 운영해온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뢰 받고, 책임지고, 상생하는 동창회를 만들 생각이다.”

-동창회가 양분된 양상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그 점에 있어선 지금 자극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된다. 나는 적법절차에 따라 총동창회장에 선출됐고, 대다수 동문들의 지지 속에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대승적 자세를 견지할 생각이다. 지금 이 마당에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되는 그런 소아병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언제나 대화의 문이 열려있고, 그것이 정도를 걷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내가 유약하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감할 땐 과감하지만 지금은 서로 예민해있으니 일정 기간 여유시간을 갖고 차분히 단합과 연대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송 총회장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동창회가 양분된 사태에 대한 고뇌와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한쪽에선 송 회장이 약체라서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목에서 송 회장은 강한 자세로 밀했다.

“나는 본래 총동창회장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주위 선후배님들이 추대 움직임을 보일 때도 태도를 유보한것은 더 좋은 분을 모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 그러나 추대위가 진행되면서 내가 나서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6년간 수석부회장을 지낸 사람이 회장직을 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의식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다 밀할 수 있지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다 보면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갈등만 심화되기 때문

이다. 다만 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다.”

-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 하자는 안이 가결됐는데…

“그것이 적법절차에 충실히 것이다. 나는 거기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우여곡절과 갈등 양상에 대해 송 회장은 끝까지 말을 아꼈다.

-총동창회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신다면…

“108년을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아직까지 동창회관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동창회관 건립은 해마다 고정 레퍼토리처럼 나왔지만 아직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나는 거창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평짜리라도 짓자는 생각이다. 변화가에 그럴듯하게 짓는 것을 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일부부터 하자는 복안이다. 그래서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총동창회관을 완성하겠다.”

모교, 재단, 종단, 총동창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발전책을 강구해야 한다. 동창회에서 가려서 일할 것만큼은 꼭 하도록 하겠다. 모교 발전을 위해서 동창회에서 재단이사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협의하겠다.

-소외된 동문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찾아나서야 한다. 그들에게 동문사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 비밀 언덕이 된다는 동기부여를 해줄 것이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본부 및 지부 조직을 거미줄처럼 엮는 작업을 할 것이다. 동문들이 연회비로 3만원씩 내는데 방대하게 호텔에서 회의를 한다.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이라면 장학금 일원이라도 더 줄 생각이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조직을 강화하고, 종적 횡적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70년대 80년대 동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석 부회장 6년 동안 살펴보니 동창회에 오는 사람만 온다. 이러면 안된다. 80년대 이후 동문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산걷기운동, 골프대회 등에 학과별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다. 김천고 재단이사, 이사장, 동창회장 해보니 자기 맡은 바 충실히 하면 된다는 철칙을 알았다.”

-송 회장의 기본 품성이 말이 적은 데다가 대가 약하고, 중요한 사안에서도 끌려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 시절, 학교 발전과 이사 선임문제로 투쟁할 때



▲ 총회가 끝나고 인사차 각 테이블을 돌며 ‘화이팅’을 외치는 송석환 회장과 참석자들.

도 수석부회장인 송 회장이 미온적이고 때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점에 대해 송 총동창회장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다”며 웃었다.

“나는 (투쟁일변도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해서 수석부회장직 사표를 낸 적이 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께서 내 사표를 반려하셨다. 생각해보라. 갈등과 마찰과 충돌로 얻어지는 것은 설사 얻어진다 하더라도 상처 뿐인

특해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학교 재단이사 선임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동국대학교 하면 주인없는 학교라고 인식하고, 그래서 교주(校主)가 있는 사학보다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모교, 재단, 종단, 총동창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발전책을 강구해야 한다. 동창회에서 가려서 일할 것만큼은 꼭하도록 하겠다. 모교 발전을 위해서 동창회에서 재단이사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협의하겠다. 될만한 것은 반드시 한다. 그 자리는 동창회장이

수석부회장 6년간 봉사 … 경험 최대 활용

조직 저변 확대와 재정 안정에 적극 노력

배려와 봉사정신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

영광이다. 왜 그런 길을 가나. 나는 결코 유약하지 않다. 모교와 재단과 종단과 대립적인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 그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선두에서 진두지휘할 것이다. 하지만 총동창회 기능이 갈등을 조정하고 대립을 완화시켜서 합의의 과정으로 가서 누구나 바라는 바를 얻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다. 그게 올바른 길이다.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주먹질만 하면 싸움이 되지 해결점을 얻을 수 없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투쟁의 길도 중요하지만 이해와 대화와 건설적 대안 제시가 내가 가진 경영철학이고 인생관이다.”

-총동창회가 양분되어서 모양은 좋지 않게 됐다. 다시 질문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는 거듭 이번 총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당선자는 낙선자를 전폭적으로 안아주고, 낙선자는 깨끗이 승복하는 동창회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자괴감도 갖고 있다고 했다.

“누가 옳고 그르다 따지고 싶지 않다. 다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기 바란다.”

-모교와의 관계 정립은?

“훌륭하신 전임 이연택 회장님의 이

내가 유약하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감할 땐 과감하지만 지금은 서로 예민해있으니 일정 기간 여유시간을 갖고 차분히 단합과 연대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다. 6.25때 부친이 행방불명이 되고, 가산은 몰락하면서 그 역시 신산한 삶을 살았지만 선비와 양반의 기개는 여전하다.

그의 고교 모교인 김천고등학교에서 이사 및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 고교 중 가장 많은 서울대 진학생을 배출한 학교로 명성을 얻었다. 학교를 끌어갈만한 사람이 없어서 대신 그가 나섰는데 “한 사람의 인재가 나라를 구하고 동양의 평화를 얻는다”는 교훈을 몸소 실천에 옮겼다. 김천고는 3.1절에 입학식을 한다. 그만큼 민족정신이 투철하다. 송 총동창회장이 김천고 재단이사장을 4년 맡아온 사이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시켰다. 송설 영친왕 보모장학회를 설립해 100억 목표 장학재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임기 2년간 40억원을 모아 기탁했다. 졸업생 중 금년 서울대 10명, 연세대 7명, 고대 13명을 합격시켰다. 전교 280명 중 서울 시내 대학에 120명 들어갔다. 지방의 조그만 학교를 이렇게 만든 원동력이 학교와 재단, 동창회가 3위일체가 된 덕이라고 강조한다.

송 총동창회장은 스스로 동창회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가, 자문하면서 답을 내린다.

“이득 보려고 해선 안된다. 자기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하면 된다. 그리고 봉사정신과 배려의 마음이 있으면 안될 것이 없다. 학교에 쓴소리 할 것이 있으면 안에서 하자는 것이 내 소신이다.”

취재 · 이 계 흥

〈본회 홍보담당부회장〉

송석환 회장 주요 경력

1963. 1 경북 김천고등학교 졸업

1968. 2 동국대학교 졸업

1975. 7 동진기업(주) 대표이사(현)

1984. 5 대한체육회 역도연맹이사

2006 ~ 2014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2001. 8 김천중고 총동창회장 취임

2011. 6 김천중고 교육재단이사장(현)

▶동진기업(주)

2001. 무역 3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2004. 무역 5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2006. 중소기업발전대상

2012. 무역 1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회장 취임 지지 플래카드 축제분위기 ‘후끈’



▲ “송석환 회장님과 함께 명문동국을 만들겠습니다” – 많은 학과, 지역, 직장, 친목별 지부(회)들이 지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회장 취임식장 스케치

이번 송석환 회장 취임행사는 동창회 주관 다른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진기한 풍경들이 연출돼, 신임 송 회장에 대한 동문들의 기대와 신망이 얼마나 뜨겁고 각별한지를 실감케 했다.

행사 당일인 3월25일 저녁 6시30분 총회가 시작되기도 전, 장충동 엠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 볼룸은 정시보다 일찍 행사장을 찾은 동문들로 입구로비부터 발디딜 틈없이 꽉 들어찼고 입주의 여지없이 훌을 가득 채운 동문들은 그간에 적조했던 인사들을 나누며 시끌시끌, 정겹고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참석동문의 숫자는 동창회 예상을 훨씬 웃도는 1천2백여명! 행사장은 좌석이 크게 모자라 수많은 동문들이 착석하지 못한 채 2시간 여가 넘는 긴 시간을 서서 행사를 지켜봐야 했는데 어느 한 사람 불평불만을 하는 이 없이 시종일관 진지하고도 밝은 얼굴들로 행사에 임해 성숙하고도 감동적인 동문 대화합의 장이 됐다.

특히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중앙단상

에 걸린 회장취임 축하 대형 플래카드와 단상 아래 한쪽 벽면을 도배하듯 빼곡히 채운 송석환 회장 지지선언 플래카드였다. 이번 지지 선언은 학과, 단위동문회, 지역동문회, 직장동문회가 각 단위별로 자진해서 동창회에 보내온 것들로 각처에서 보내온

축하화환들과 더불어서 행사장을 축제의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 연말 ‘2013 동국인의 밤’ 행사를 열지못한 관계로 더욱 많은 동문들이 열의를 갖고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못한 인원이 몰린 탓에 본회는 서둘러 호텔1층

뷔페와 중식당, 양식당, 커피숍으로까지 스페어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날 준비한 호텔의 식자재가 완전 동이 나는 등 호텔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각원장 법타스님을 비롯한 스님들도 대거 참여, 시종일관 정중동의 고요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일반 동문들이 스테이크로 식사를 하는 동안 따로 마련된 산채 비빔밥으로 공양을 하며 스님들간 친목을 다지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로비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던 사무처 직원들은 한꺼번에 밀어 닦치는 동문들로 온 몸에 흥건한 땀을 흘려야 할 정도로 분주했는데 자원봉사를 자처해 달려와준 동문들이 일을 분담하고 도와준 덕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이날 송석환 회장은 취임식이 끝나고 이어진 만찬장에서 참석 동문들의 테이블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만장일치 선출에 대한 답례의 인사를 하고 축배를 들며 향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동문화합과 소통에 최선을 다 하리라는 메시지로 화답, 이날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초만원 사례… 대화합 한마당으로 화기애애 행사 전체 ‘알바’ 없이 동문 자원봉사 해결



▲ 행사시작 30분 전부터 접수창구가 붐비고 있다.

■ 송석환 총동창회장에게 바란다

변화, 열정, 새로운 도전으로 책임 다하자

신 윤 표 (61행정, 前 한남대 총장)



총동창회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를 다같이 생각합시다. 고고한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있기에 참으로 엄중한 현실을 보고 박종윤 회장님 취임모임(세종홀)과 송석환 회장 단독 출마 총회모임, 두 곳에 참여하여 보았습니다. 두 회장님 다 형님, 아우로 부르는 호적

만 다르지 가족처럼 오랜 세월 살고 있는 특별관계인이지요.

전임 이연택 회장님도 더욱 그려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아름다운 하나로 동창회, 동창회다움, 존재이유, 품격있는 회장단으로 변모해야지요. 우리 합력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기 원합니다. 이연택 회장, 8인 고문단 중심 추대위 보임, 박종윤 동문 회장 취임과 총동창회 이사회와 총회에 단독 출마 직선으로 취임한 송석환

동문, 어떻게 할 것인가요?

박종윤 회장님, 송석환 회장님 취임사와 이연택 회장님의 고별사 뜻 중심으로 동국가족 마음 상처 추슬러 쉽고 스마트한 동창회 만들고 넓은 관행과 돈내고 회장하는 행태도 청산하며 새로운 도약과 개혁을 위해 법과 원칙도 살려야 합니다.

동문회나 동국발전이 개인적 의지와 실력, 돈만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사회법으로 판단을 구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108년 역사, 25만 동문식구가 오직 다툼을 멎추고 다시 뭉쳐 총동창회, 학교, 재단, 종단까지 하나로 힘모아 변화, 열정, 새로운 도전으로 발전위해 적극적 참여, 역할과 책임 다하기로 지혜모으기를 제안합니다. 총회를 박·송 회장 공동으로 소집하여 이연택 전 회장님과 박종윤 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송석환 회장을 단일 회장 인정 총회로 개최하여 총회에 의한 총 회원 참여 결정 다수결 민주원리와 총 회원을 위한 총회로 거듭날 것을 기원합니다.

대동단결의 구심점으로 빛나길 응원합니다!

김 종 필 (82행정, 내일신문 정치부장)



동국대학교 동문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은 동국대학교입니다. 우리 모교가 대한민국 으뜸인 그 이유와 명백한 근거를 세 가지만 밝히겠습니다.
첫째, 자기 인생은 누구에게나 소중

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몸담은 모교는 영원히 훌륭한 삶의 뿌리가 됩니다.

둘째, 남북한 모두가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 만해 한용운 선생을 제1회 졸업생이자 초대 총동창회장으로 모신 민족사학의 표상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칭송하는 노래, 애국가. 애국가에 나오는 단두 곳뿐인, 우리 겨레의 기상과 대단결의 성지인 백두산과 남산. 우리는

남산이라 쓰고 〈동국대학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교를 향한 한없는 애정과 무한책임감으로 헌신하기 위해, 새롭게 선출된 총동창회 집행부에 감히 몇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25만 동국가족 대동단결의 구심점이 되어 주십시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노장청(老壯青) 동문 간 소통과 조화를 통하여 통합의 에너지

우리는 모교와 동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합시다!

총동창회관 건립을 열망합니다!

가 솟구치는 총동창회를 열망합니다. 동문들의 숙원인 총동창회회관 건립을 기필코 성사시켜 주시길 희망합니다. 자립 재정의 토대 위에 동국의 명예와 자긍심을 빛내는 진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동국대 건학 108주년의 해, 우리는 모교와 동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합시다!

성의 상실을 뜻한다.

슬프게도 대학원생들에게 총동창회는 참 먼 곳이다. 회장이 누구인지,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행사를 통해서도 접해보지 못했고, 총동창회 명의의 장학금을 받아보지도 못했으며, 동문의 이름으로 지어진 시설을 사용할 기회도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원생들은 총동창회를 가까이서 느끼며 인지하고 싶어 한다. 단, 시끌벅적한 이벤트나 낮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말이다.

동창회는 대승적 화합과 자기 희생 봉사

서 창 훈 (88정치, 모교 대학원신문 편집장)



사람들의 관계는 의(義)나 이(利)로 이뤄진다. 의는 사람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부자, 부부, 형제, 친구, 그리고 국가와 국민 사이를 이어주며 변함없이 오래감을 속성으로 한다. 그래서 의를 저버린 자에게는 온갖 도덕적 비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반면 이는

짧고 잘 움직이며 관계의 대상이 바뀌어도 하등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교를 졸업한 동문들의 관계는, 그 결사체인 총동창회는 둘 중 어떤 것의 속성을 따를까? 당연히 의다. 동문들 얼굴 한번 보려 몇 시간씩 차를 달리고, 짬을 내기 어려워 모임 참석도 못한 채 동창회보 구독이 전부일지언정 동창회비도 꼬박꼬박 납부하며, 형편에 따라 기부도 하지 않는가.

의로 이루어진 관계도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늘 그 정도를 알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의가 상황 지경에 이르면 그칠 줄 안다. 하지만 이의 추구에는 만족함이 없는지라 몰아붙이는데 한량이 없고 의의 관계에 이가 끼어들면 옆에 아홉 의리에 균열이 생긴다. 의를 가늠하는 척도는 단단함이요, 결속이요, 이익의 포기와 자기희생이다. 총동창회가 의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 정체

회비는 1년에 한 번… 동문님의 정성을 기다립니다

년회비와 임원회비는 후배장학사업, 동창회보 제작, 조직강화 및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일반회원 • 년회비 3만원

■ 임원회비 • 고문 1백만원 이상 • 부회장 1백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74659 (예금주 : 송석환 동국대총동창회장)

※ 각종 문의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02-733-3991, 733-39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송석환 회장 직무대행 체제 의결

상임위원회 열어 '이사회 및 총회 부의 안건' 심의



▲ 송석환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소집된 상임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열렸다.

송석환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소집된 2014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가 상임 위원 22명(3명 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1일(화) 오전 8시 앰

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2013년도 업무 및 회계감사 결과 이연택 회장의 발전기금 미납으로 자격 상실(임원 등 선거규칙 제26조)에 해당돼 회칙 14조 3항에 따라 3월 5일부터 송석환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회의 보고사항으로는 △전회차(2014.2.10)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과 △감사보고가 있었다.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이사회와 총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2014년도 결산심의안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임원 선출에 관한 건은 "회장 선출방법은 선거규칙에

따르고, 추후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준비한다"고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송석환 수석 △홍파스님 △김진문 △서영준 △이재형 △김영순 △전영화 △법타스님 △김환배 △차민수 △박태권 △어연호 △심응석 △김진억 △유종칠 △윤관욱 △김오현 △김태성 △김종형 △손창수(위임) △김종찬(위임) △진우스님(위임) -이상 학번 및 가나다순-

본회 정기감사

3월 4~5일 양일간

본회 정기감사가 지난 3월 4~5일 양일간 본회 사무처에서 실시됐다.

이번 감사는 이제곤 감사와 이홍섭 감사가 본회를 방문, 업무 및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실시했다.

2013년도 감사보고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귀중

우리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4조 4항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과 절차를 준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총동창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 바, 다음사항을 보고합니다.

1. 특별 감사 요청 사항입니다. 제26대 총동창회장은 「임원 등 선거규칙」 제8조에 의거 임기 첫해인 2012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6억원 이상의 발전기금 기부 약정을 이행하여야 하나 그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규칙 제26조에 의거 2012년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총동창회장으로서의 당선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다.

2.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총동창회는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된 혼선으로 2013년 '동국인의 밤' 행사도 진행 하지 못하는 등 회무가 거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덕망과 능력이 있고 동문사회에서 지지를 받는 적임자가 총동창회장이 될 수 있도록 회칙과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3. 회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별도 제시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지출증빙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권고합니다.

이상의 특별 감사 요청 사항과 운영 및 회계의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결산보고서가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결산수지사항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5일

감사 이재곤 감사 이홍섭

84학번 홈커밍데이 행사 안내

■ 모교방문 행사

- 일시 : 2014년 5월 24일 (토) 17시
- 장소 : 모교 중강당 및 캠퍼스 일원

※ 가족동반 환영합니다.

■ 미술학과 기부전시회

- 기간 : 2014년 4월 18일 ~ 20일
(오픈식 4월 18일 오후 5시)
- 장소 : 아트스페이스 선 (삼청동)

84학번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준비위원회

개교108주년기념

제8회 동국인골프대회

5월 26일 낮 12시 - 금강C.C

- 일 시 : 2014년 5월 26일 (월) 낮 12시
- 장 소 : 금강 컨트리클럽(031-880-6000)
- 참 가 비 : 1인당 20만원(캐디피 개별 부담)
- 참가대상 : 동문, 교직원
- 참가신청 : 201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 주 최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14년 3월 31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아름다운 동국사랑, 후배장학금 적립'

GS칼텍스 할인 보너스 카드

이용만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시 혜택 (GS칼텍스주유/충전시)

1. 개인별 현장 할인 금액 : 1리터당 10원
2. 사용실적에 따라 1리터당 15원(LPG충전시 5원)씩 장학금으로 적립
3. 1리터당 5원(충전시 3원)씩 개인 포인트 추가적립
4. 사용한도 : 월 600리터, 1일 3회 이내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직무대행은 적법한 절차”

K대 출신 변호사 역대 회장 선출시 발전기금은 필수조건

총동창회칙과 임원 등 선거규칙에 따르면 회장으로 추대되는 사람은 선거규칙 제8조에 의한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선무효로 정하고 있고, 그 당선무효로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회칙 14조 3항)고 정해져 있다.

이를 둘러싸고 “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할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섰다. 전자 입장인 이연택 전 회장측은 “발전기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후자 입장인 송석환 회장 직무대행측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장으로서의 발전기금 의무는 피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K대 출신 변호사는 “선거에 의한 것이든, 추대에 의한 것이든 당선자 결정의 경우, 모두 선거규칙 제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26조, 제25조 4항, 5항)”는 의견이다.

이는 발전기금 납부 이행을 면제할 경우 “선거와 추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회관건

립기금과 운영보조금 수입이 없어지게 되어 동창회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규정을 둔 것은 “회장에게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동창회를 원만히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역대 회장 선출시 적용해 왔다”면서 후자 입장인 송석환 직무대행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제24대 전순표 회장이나 26대 이연택 회장도 25대 회장으로 추대 당선되었을 때 지켜졌던 사항이다.

총회일자 중복 등 일탈행위 ‘빈축’

동창회 사무실에 경비 용역 투입비 1천만원 상당 누구 돈?



▲ 사무실 투입 경비용역과 ‘당일 특급’ 우편물

제27대 회장 선출을 앞두고 사상 유례없는 일련의 사건들로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와 등을 돌리는 사태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사회 및 총회일정의 문제로 송석환 회장 직무대행 측이 ‘3월25일(화) 18:30 앰배서더호텔’로 정해 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문화일보에 공고하자, 박종운 회장 추대측이 뒤늦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장소만 세종호텔로 정하면서 경쟁과 충돌이 예상되었다.

문자·전화공세 ‘자충수’ 비난

이 과정에서 박종운 측은 아르바이트생과 텔레마케터, 최근 졸업한 총학생회장까지 동원해 집중적으로 송석환 측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 전화공세를 펴부으며 잡지는 동문들끼리 깨워 신경을 곤두세웠다. 반면 송석환 측은 학번별로 고루 분포된 자원봉사자들이 동창회의 정체성과 미래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며 문자메시지도 자제하며 대응했다.

총회를 하루 앞둔 3월24일 오후부터 30일간 동문들이 드나드는 사무실 공간에 경비요원들을 배치해 송석환 측의 총회 준비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자충수를 둔 셈이 되었다. 특히 경비요원들의 1인당 용역비가 40만원 정도인데 20여명이 나왔으니 1일 경비만도 수백만원인데다 세종문화회관 총회장에 동원된 경비 20여명까지 합치면 1천만원 넘는 경비가 동창회비로 지출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급조된 상벌위, 징계 남발

상벌위원회에 의한 정통성과 징계 남발이다. 회칙상 수석부회장이 상벌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는데, 총회를 10일정도 앞두고 상벌위원회를 급조해 송석환 직무대행을 비롯 상임위원회(3월11일) 참석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총회에서 선임한 감사까지도 징계하는 불법행위를 합법인양 가장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연택 前회장측은 3월 20일 총동창회 상벌위원장 최용준 명의로 송석환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상임위원, 감사, 사무처 직원 등 30여 동문 앞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당일 특급’ 우편물을 발송했다.

또 이들은 3월23일자로 소환장을 보낸 동문들에게 ‘직위해제’와 ‘자격정지’ 처분이란 징계통보서를 역시 ‘당일특급’ 우편물을 보냈다. 총동창회 회칙 31조는 “징계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수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촉 3개월 정도인 최용준 동문을 상벌위원장으로 등장시켜서 일사천리 처리를 시도했다. 최동문에게 확인결과 “본인은 상벌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일도 없고 소환통지서 발송도 몰랐다”고 해명해 합법성을 주장하던 이前회장측의 무리수가 어느 정도인지 를 보여주었다.

‘당일특급’ 우편물 가족들 당황

문제는 빨강글씨의 “당일특급” 우편

을 받아보는 가족들이 무슨 큰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착각, 놀라고 걱정했다는 사실은 동문사회의 정서를 다시 생각해볼 대목이다.

홈페이지 일방적 주장 ‘도배’

홈페이지에 의한 일방적 공세도 문제다. 홈페이지 홍보에 기여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동문들이 일방적으로 지지하리라는 기대는 낌센스였다. 동문들이 옥석을 가리지 못하리만큼 귀가 어둡고 눈이 멀지 않다는 것이다.

사무실 전화 끊고 있는 숨바꼭질

이것도 모자라 사무실 전화를 4차례나 끊고, 더 이상 전화가 불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동창회 대표전화번호(02-733-3991 ~ 3)를 통신사를 바꿔 이동했는데 이 前 회장측 연 모교수가 여직원 고발 운운하며 엄포를 놓는 일도 있었다.

2개 동창회는 전임 회장 책임

이연택 전임 회장이 지난 4년동안 큰 일, 많은 일을 해놓고도 아름다운 회향을 하지 못했다. 두 개의 동창회를 만든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중론이다.

2차 추대위 구성 기준 애매

10년간 회비 한푼 안낸 고문까지 위촉

제1차 회장후보 추대위원회가 50년대부터 60, 70, 80년대 학번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골고루 위촉된 반면에 소위 고문단 위주의 2차 추대위원회는 40, 50년대 학번으로만 구성돼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전 회장측은 역대 동창회장, 재단 임원, 고액 기부자들로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전임회장이었던 정재철 고문과 원용선 고문은 빠져 허구로 드러났다. 대신 역대회장도, 재단임원도, 고액 기부자도 아닌 임모 고문이 포함되어 신뢰성에 흠집을 남겼는데 임

임원 선출 일정 심의 선관위 2차 회의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2014-2차 회의가 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12일(수) 오전 8시 앰배서더호텔 드 세프에서 열려 제27대 총동창회 임원 선출방법 및 일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3월11일 열린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인 “제27대 동창회 임원의 선임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동창회 선거 규칙에 의한 선거로 한다”에 따라 임원 선거일을 3월 25일(화) 18:30로 정했다.

이 일정은 3월중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치러야 하는 일정도 감안해 의결됐다. 회보 공고는 인터넷 동창회보인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또한 동창회보 공고내용을 전체 임원들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박종운, 류수택, 송석환 회장 후보군에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별도 설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들은 “어떻게든 동창회가 양분되는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된다”는데 공감하고 “박종윤 추대측과 송석환 추대측 대표가 협상을 통해 단일후보를 내세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축제로 승화되도록 협상 중재자를 내세우자”는 의견을 냈으나 진행과정서 불발됐다.

회장 선출 위규 사례 회장 선임 오보 등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억) 2014년 1차 회의가 지난 2월26일(수) 오전 8시 본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려 ‘차기 27대회장 선출과정의 위규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19~21일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문화일보에 보도된 ‘동국대 박종운 동창회장 선임’은 이사회 선임과 총회 인준과정을 거치지 않은 오보로서 25만 동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홈페이지에 오보임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2차 추대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 자문을 받지않아 선거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차 추대위 구성 기준 애매

10년간 회비 한푼 안낸 고문까지 위촉

모 고문은 최근 10년동안 동창회비를 한푼도 낸 적이 없어 의무는 못지키면서 권리만 행사한 셈이다.

또 8명의 2차 추대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총회에는 김모, 형모, 임모 고문만 참석했을 뿐 나머지 고문 5명은 불참해 이에 대한 해석도 구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가 젊어져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2차 추대위원회 구성과, 나아가 회장으로 추대된 박종운 고문을 볼때 동창회가 되려 퇴보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사무실 폐쇄’ 초유 사태 발생

박 전 사무총장, 업무용 컴퓨터 · 통장 등 들고 나가



▲ 동문들의 출입이 금지된 채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종로 인사동에 있는 총동창회 사무실 출입이 지난 3월10일(월)부터 3월12일(수)까지 일시 통제되었다가 3월13일(목)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이는 박용재 전 사무총장이 3월9일 경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놓아 사무실 직원과 동문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3월10일 아침 정시 출근한 신관호 사무국장이 박 사무총장에게 “어떻게 된 일이니?”고 전화로 물었더니 “회장

과 협의했다. 회장과 사무총장 허락없이는 그 누구도 출입이 안된다. 만일 열쇠를 빼고 들어가면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하도록 사전 조치되었다”고 답변했다.

이 날은 송석환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사무실에 나오겠다고 통보된 날이었다.

이에 신 사무국장은 ‘박 사무총장이 이성으로 돌아가 문을 열겠지’ 생각하고 사무실 근무를 포기한 채 발길

을 돌렸다. 이후 4일째인 13일에는 “동창회 사무실이 회장이나 사무총장의 개인 사무실이 아닌데 왜 못들어 가느냐”는 일부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신 사무국장이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신 사무국장은 박 전 사무총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은 어떻게든 문을 열겠다”고 통보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경찰 10여명이 들이닥쳐 사무실 출입문 개폐경위를 조사한뒤 신 사무국장을 현장 체포 연행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신 사무국장은 “사무실에 들어와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일상행위”라고 밝혔으며,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업무용 컴퓨터(사무국장, 부장, 여직원용)와 1월 및 2월 수입 · 지출결의서를 비롯한 업무서류, 동창회 공용 예금통장 등이 도난 당했다”고 맞신고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동문들은 “전임 회장측이 사무실도 지키지 못하고 백기를 들고 야반도주해놓고, 이제어서 ‘무단 점거’로 흑색선전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몰상식 행위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분개했다.

“후보 경합시 총회로 넘기는게 순리”

상임위, 회장 선임 의견 제시

2014년 제1차 상임위원회가 지난 2월10일(월) 오전8시 시내 프레지던트 호텔 ‘동해’에서 열렸다.

이연택 회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9명중 23명이 참석한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전회차(2013.10.28)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추대위원회 활동(1~8차)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상임위원들은

“추대위원회에서 류수택, 송석환 두 동문이 경선상태라면 이사회와 총회에 회부해 선택하는게 순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태권(71/75정외, 전 국회의원) 상임위원은 “추대위원회에서 한 분으로 결론을 못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 결론을 내면 된다”고 주문했다.

연기영(71/75법학, 모교 법학과 교수) 상임위원은 “1차 추대위가 자진 사임한다면, 이후 문제는 회장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은기(73/77법학, 서강대 로스쿨교수) 상임위원은 앞으로 동창회 조직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회칙을 개정해서라도 차기 회장을 미리 뽑아놓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연택 회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을 참고하고, 또 관계 회칙과 규정을 면밀히 점검한뒤 신임 회장 선출 문제를 신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혜동회 신년 인사회

혜화전문 46학번 모임인 혜동회(회장=박영민) 신년인사회가 지난 해 1월16일 회원 및 가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각역 파노라마부페에서 열렸다. 박 회장은 인사에서 “3대 사학 명문의 자부심을 향유했던 우리가 모교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쏟자”고 말했다.

ROTC 정기총회 회장에 윤관욱 동문

ROTC총동문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육군회관에서 제20-21대 회장 이 · 취임식과 21기 임관 3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윤관욱(15기, 73/77화공, 다빈치CL워스 사장) 동문이 2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수원지부 임원개선 회장에 이석태 동문

수원지부(회장=박봉준) 정기총회 겸 송년 모임이 지난 해 12월2일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화청갈비집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임 회장에 이석태(77/84국문, 수원고 교사)동문을 선출했다.

교육대학원 정기총회 회장에 강창호 동문

 교육대학원 동문회(회장=성해스님) 정기총회가 지난 해 12월12일 자양동 해피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강창호(04/07교원, 사진) 동문을 선출했다.

중랑구청 로비 주민쉼터에 흉상

문태식 동문

아주그룹 명예회장



본회 고문 문태식
(46/49사학, 아주
그룹 명예회장)동
문의 흉상이 3월7
일 중랑구청 1층
로비에 세워졌다.

문동문은 지난 해 5월 토지 14

필지 26만3799㎡(임야 1필지 2만
1494㎡, 도로 13필지 2305㎡), 시가
400억원 상당을 기부했다.

중랑구는 기부받은 토지 중 일부
가 현재 건설 중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돼 약 90억
원의 보상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으며 이를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취임

전순표 동문

세스코·(주)팜클 회장



본회 고문 전순표
(53/57농학, 세스
코·(주)팜클 회
장)동문이 강원도
민을 대표하는 사
단법인 강원도민
회 제13대 중앙회장으로 1월16일
취임했다.

전동문은 정선출신으로 2008년

본회 총동창회장을 지냈고 2006·
2007년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설봉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강원도 각 시도에서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제봉사단체인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를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저개발국
가 안면기형 어린이들의 무료수술
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에 선임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



김병학(64/68법학,
강원대 명예교수)동
문이 지난 해 11월
26일 국회 강창희 국
회의장으로부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 임
명장을 받았다. 김동문은 강원대 경
영대학원장, 국제 e-비즈니스학회 초
대 회장, 송호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회장



김완식(64/71농학)동
문이 제18대 대한노
인회 강원도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배(65/69식품,
세광식품(주) 대표이
사)동문이 한국김치
절임식품공업협동조
합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장



국내 주류산업의 산
증인인 오정석(72/79
농학)동문이 2월7일
열린 경기남부지방
종합주류도매업협회
2014년 정기총회에서
제4대 중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동원주류판매(주) 대표이사, 경기남
부주류도매협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
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서
'주류도매유통의 강자가 되는 길' 도
펴냈다.

박준형 고문 모교에 1억 기탁

매년 장학금 등 현재까지 23억원 출연



(주)신라교역
회장 박준형
(57/63경제, 본
회 고문)동문이
지난해 12월16
일 모교에 발전
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박동
문은 매 연말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매년 후배들을 위
해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장학금은 30여명에게 1억

3천여만원을 전달했다. 박동문이 그
동안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23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
2010년 3월 경영관 도서실에 <능금사
랑 박준형홀>을 현정했다.

박동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
으며, 현재 신라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신라교역, 신라SG 회장 등을 함께 맡
고 있다.

방사성동위원회 구축사업단장



김종현(행정75/82)동
문이 2월27일 개최된
2014년도 한국텔레스
크린협회 정기총회에
서 상근부회장에 선
임됐다. 김동문은 제
5회 입법고시로 공직에 입문, 문화체
육관광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무이사를 지냈고
모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와 미
국 캔サ스대학 및 캘리포니아주립대
객원교수를 지냈다.

유국현(79/83화학,
모교 화학과 교수)
동문이 한국원자력의
학원에서 추진하는
방사성동위원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단장으로 3월17일 선
임됐다. 방사성동위원회를 이용한 치
료기술이 개발되면 국내 암환자 생존
율 향상 및 치료기간 단축에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 헬기투어 개시



민간 항공운송 사업
자 블루에어라인 대
표로 있는 최인규
(79/86통계)동문이
지난 해 10월16일 한
강과 여의도, 강남 일
대를 헬리콥터를 타고 둘러볼 수 있
는 서울헬기투어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김두식(80/87회계)동문이 2월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에 부
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부
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
루 역임했다.

호텔 인터불고원주 대표이사

장운상(81/85국사)동문이 호텔 인터
불고원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모교 졸업 후 세종대 경영대학원에
서 호텔관광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해군대학 총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인터불고 그룹 기획조정실 부장, 서울
지사장,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제언어문화학회 회장

구본철(81/88영문, 모교 경주캠퍼스
영어영문학과 교수)동문이 지난 해
12월19일 열린 국제언어문화학회 정기
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롯데쇼핑 이사 승진

류민열(84/91경영)동문이 1월28일
단행된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쇼핑 이사로 승진했다.

광주점장 취임 2년 만에 승진한 류
동문은 1990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원팀장, 경
영지원부문 총무팀장을 지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 선출

김태원 동문

국회의원



김태원(71/75연
영)동문이 1월16
일 열린 제2차 새
누리당 중앙위원
회 선거인단대회
에서 신임 중앙위
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중앙위원

회는 약 1만2천여 명의 위원이 속한 새누리당 최대 직능조직으로 정부와 당의 핵심 정책사항 홍보 및 정책입안활동 등을 전개한다.

김 동문은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고 현재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회장, 해외개발금융 포럼 공동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민주당 사무총장 취임

노웅래 동문

국회의원



노웅래(99/05연
원)동문이 1월15
일 민주당 사무총
장에 취임했다. 매
일 경제신문과
MBC 기자를 거쳐
지난 17대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

된 노 동문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당내 화합을 주도하는 데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의 '직원사찰 문건'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언론인 경력을 살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저서로는 '노웅래, 길위에서 묻다' 등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윤양배(99/01경영)동문이 1월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로 임명됐다.

윤 동문은 한국 국제협력단(KOICA) 연구조사부장과 노사정위원회 사무처 관리과장, 고용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장(직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모교 겸임교수로 임용



배우 고현정(90/94연
극영화) 동문이 모교
겸임교수로 임용됐다.
후배들을 위한 재능
기부 차원에서 마련
된 이번 1학기 강의에
서 고 동문은 연극학부 3,4학년을 대
상으로 <매체연기> 과목을 강의한다.

수상

서화예술 비엔날레 초대전 특별상



소설가, 시인, 시조
시인으로 활동 중인
남균우(58/63법학, 본
회 지도위원)동문이
지난 해 11월 사단법인
한국서화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서화예술 비엔날레 초대전
에서 서예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

지만호(87/94행원, 오늘의 한국 회
장)동문이 지난 해 12월27일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국민소통과
통일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풍경을 만지다' 전시회

박 순(66/68불교)동문이 지난 해 11
월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가나아트센
터 1층 전시장에서 '풍경을 만지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ROTC 윤영환 · 김세나 동문

학과동기 전국 1·2등 … 52년 역사상 처음



단 출신들이 참여하는 임관식에서 한 학교, 그것도 같은 과 출신이 임관 성적 1, 2등을 차지한 것은 ROTC 52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모교 학군단 출신이 임관식에서 표창을 받은 것도 40여년 전인 ROTC 6기 임관식 때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윤영환 동문은 2013년

지난 2월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학군단(ROTC) 52기 임관식에서 모교 경찰행정학과 출신인 윤영환 · 김세나씨가 나란히 전체 수석과 차석을 차지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115개 대학 학군

학과 훈련에서 수석을 차지하면서 일찍이 대통령 표창을 짐작케 했으며, 김세나 동문은 근육을 녹이는 희귀병인 횡문근 융해증을 극복하고 2012년 여름 훈련평가에서 수석을 차지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킨 바 있다.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

김근영(05/08대학원)동문이 201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5회째를 맞은 이 공모전은 총상금 6억원을 수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경찰청 인사이동

■ 치안감 인사

△김종양(00/04대학원)=경찰청 기획
조정관
△홍익태(78/85경행)=경찰청 경무인
사기획관
△윤철규(78/85경행)=경찰청경비국장
△이상식(09/11대학원)=경찰청 정보
국장(승진)
△구은수(78/85경행)=경찰청 사회안
전비서관
△이상원(77/81경행)=인천지방경찰청
장
△장전배(98/05대학원)=광주지방경찰
청장
△최현락(99/02대학원)=대전지방경찰
청장
△정해룡(78/82경행)=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승진)
△윤종기(79/83경행)=충북지방경찰청
장
△전석종(77/81경행)=전북지방경찰청
장
△정순도(74/81경행)=전남지방경찰청
장

■ 경무관 인사

△박경민(08/10대학원)=경찰청 대변인
△이재열(79/86경행)=경찰청 수사기
획관
△강성복(77/84경행)=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장
△조현배(07대학원)=경찰청정보심의
관
△허영범(78/85경행)=서울지방경찰 수
사부장
△강성채(79/83경행)=송파경찰서장

△전창학(79/83경행)=부산지방경찰 제3
부장

△김상운(78/85경행)=대구지방경찰 제1
부장

△김해경(92/95행원)=대전지방경찰 제1
부장

△남택화(79/83경행)=충북지방경찰차장

△유현철(78/82경행)=충남지방경찰차장

■ 총경 인사

△최관호(84/91경행)=경찰청 감사담당
관

△김광호(07/10행원)=경찰청 정보1과
장

△이은정(84/88경행)=경찰청 보안1과
장

△이봉행(00/03대학원)=경찰대학 치
안정책연구소

△최해영(79/83경행)=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장

△김병구(09/11대학원)=서울지방경찰
청 경비1과장

△전병용(77/84경행)=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장

△김소년(84/91경행)=서울지방경찰청
22경찰경호대장

△김상우(82/89경행)=서울지방경찰청
청사경비대장

△진정무(07/11대학원)=서울 용산경
찰서장

△조용식(82/86경행)=서울 수서경찰
서장

△이창무(07행원)=서울 강동경찰서장

△전진선(78/69경행)=인천 국제공항
경찰대장

△이성형(74/81경행)=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장

△구본걸(74/81경행)=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신상석(78/85경행)=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이한일(79/86경행)=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김성근(77/84경행)=경기지방경찰청
제2경무과장

△박형길(81/88경행)=경기 군포경찰
서장

△윤동준(80/84국문)=경기 화성동부
경찰서장

△이문국(09/11대학원)=경기 하남경
찰서장

△황성모(74/78경행)=경기 구리경찰
서장

△유운종(대학원)=강원지방경찰청 생
활안전과장

△김창수(05/07행원)=강원 속초경찰
서장

△반병욱(76/80경행)=강원 정선경찰
서장

△이홍만(00/02행원)=강원 고성경찰
서장

△김관태(74/81경행)=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이승길(78/85경행)=전북 덕진경찰
서장

△김주원(84/91경행)=전북 고창경찰
서장

△우형호(75/82경행)=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한영록(88/92경행)=전남 강진경찰
서장

△정은식(00/02행원)=경북 김천경찰
서장

△이범규(79/86경행)=경북 성주경찰
서장

△백준태(04/07행원)=경찰지방경찰청
경무담당관

△한도연(83/90경행)=전북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

△김시택(95/97행원)=경찰병원 총무
과장

△장종근(03/04행원)=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한달우(99/01행원)=충남 서천서장

법무부 인사이동

■ 검찰청

△김후곤(84/91법학)=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前 수원지검 특수부장)

△박윤석(83/87법학)=전주지검 군산
지청 부장(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교정공무원

△유병철((84/91법학)=인천구치소장
(前 국방대학교 파견)

△최강주(82/86경행)=국방대학교 파
견(前 광주교도소장)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기숙사 착공

연면적 8,319m², 지하 1층 · 지상 8층 규모



▲ 4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산바이오메디캠퍼스 기숙사가 착공됐다.

모교는 지난 3월20일 오후 2시 일산 학생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착공식을 갖고 이오메디캠퍼스 기숙사 공사에 착수

개교108주년 봉축 연등달기 캠페인

‘변화·혁신 통한 새로운 대학’ 발원

모교가 개교 108주년을 맞아 제2건 학운동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만인 동참을 목표로 하는 봉축 연등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 3월 7일 오후 3시 모교 로터스 힐에서 캠페인을 위한 만인만등 봉행 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발대식에는 김희옥 총장은 위시한 경영부총장, 학술부총장, 평생교육원장과 정각원장 법타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희옥 총장은 인사말에서 “동국대학교 가 걸어온 지난 108년은 혼란과 고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번뇌의 시기였으나, 최근 우리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변화와 발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간절한 바람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 취지

를 밝혔다.

불기2558(2014년) 만인만등 연등 불사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6일 1차 회향을 가지며, 108을 의미하는 10월 8일에는 2차 회향을 갖는다.

청동여래입상 보수 “반세기 모교 상징물”

모교는 지난 3월12일 본관 앞 팔정 도길에서 팔정도 청동여래입상 보수 불사를 위한 고불식을 거행했다.

팔정도 청동여래입상은 개교 49주년을 맞아 모교의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 1964년 총학생회가 건립을 추진, 조각가 김영중 선생을 통해 조성됐다. 이후 반세기에 걸쳐 동국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했다.

총 공사비만 174억원이 투입되는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기숙사는 연면적 8,319m²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며, 약 1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기숙사 객실은 1인실 20실, 2인실 190실 등 총 210개로 구성되며 바이오시스템대학 소속인 의생명공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게 된다.

지난 2011년 3월 개교한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는 기존의 동국대 일산 병원 주변에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이 결집해 경기 북부지역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거점대학으로 도약 중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작과정

경주캠퍼스 선정

경주캠퍼스는 고용노동부의 ‘2014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작과정’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정보기술(IT) 등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기존 창업 지원사업과 달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수행기관인 경주캠퍼스 아시아 연구원(원장 권오윤)에서는 재학생 54명을 선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팀당 600만원의 창직 활동 지원비와 창직 활동에 필요한 창직 특화센터 공간을 제공하며,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과 멘토링,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경주캠퍼스는 지난 2012년 ‘창조캠퍼스’ 지원 사업, 20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조적 역량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동문신간

‘발췌 · 고려왕조실록 – 고종에서 공양왕’



조병찬(59/63 농학, 모교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 2월 20일 저서 ‘발췌 · 고려왕조실록 – 고종에서 공양왕’을 펴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몽고와 원 등 숱한 외세에 시달리며 긴 암흑기를 거쳤던 고려왕조의 흥망과 더불어 고려왕실 근친혼과 왕계도에 이르기까지를 조망한 책.

머리말에서 조 동문은 “기울어져 가는 고려 후기 상황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려사절요’와 ‘고려사 세가’의 주요 내용들을 발췌 압축하여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수고와 독서효율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정운 한시집’



故 박원서(40 중앙불전)동문이 생전에 집필하고 그 후손들이 유고를 정리한 한시들을 모은 ‘정운 한시집’이 자손들에 의해 한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한시집에는 故 박 동문이 일상에서 만난 山水와 여러 인연들을 해박한 한문 지식으로 담백하게 그려낸 작품 300여편이 수록되어 있다.

박 동문은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장 등 한평생을 교직에 몸담았었다.

